

남해화학, 충청지역 주유소 개설

2003년 11월 1호 개점 이후 5번째 ... 전국 영업망 확보 노력

2003년 말 유류 판매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남해화학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청주에 주유소를 개점하며 중부권 공략에 나섰다.

남해화학은 1월16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신영주유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영주유소는 주유기 8대와 200kl의 저장탱크를 갖추고 있으며 한해 8000kl의 유류를 판매해 65억여원의 매출을 올릴 예정이다.

남해화학은 2003년 11월 전남 함평군에 주유소 1호점을 개점했으며, 신영주유소는 전국에서는 다섯번째, 충청권에서는 처음 개점하는 것이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2004년 상반기에 주유소 40여개를 확보하는 등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에서 주유소를 개점했으며, 앞으로 비료 생산으로 쌓아온 기업신뢰도를 통해 유류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1/19>